

투데이 칼럼

북한 주민들의 관광 여행

북한에서 여행을 가고 관광을 즐기는 것이 가능할까 궁금하다. 여기엔 장마당을 통해 부를 축적한 '돈주', 신용 부유층의 등장이 결정적이다. 북한도 시장화가 진행된 지 30년이 넘었다. 시장화가 진행됐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도시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고 또 도시화가 진행됐다는 말은 그만큼 중산층이 늘었다는 얘기다.

또 김정은 정권 이후로 관광 자체를 많이 육성했다. 예를 들면 문수 물놀이장, 승마장 이런 것들을 건설하는 것 자체가 와서 돈을 써라 그런 암묵적인 얘기가 될 수 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종의 제한도 비교적 완화돼, 기관이나 기업소의 단체 관광을 위한 여행 허가도 쉽게 난다. 국내 관광객이 북한을 돌아다닐 때는 기관·기업소에서 주최하고 기관·기업소에서 스케줄을 짤다. 여행증명서 발급 받는 것도 전부 기관·기업소에서 나서서 국제기관이나 국가기관과 연결해서 한다. 돈을 잘 모아서 평양시 주변으로 향산, 묘향산 그리고 개성, 그리고 개성을 중심으로 한 민속촌이라든가 그런 변두리 지역으로 많이 나간다.

2019년엔 여행보험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손해보험사인 북극성 보험



정복규  
논설위원

회사는, "전국에 문화 휴양지들이 생겨나면서 여행자 보험 수요도 늘고 있다"고 말한다.

여행자보험을 포함한 기타보험료 수입은, 2019년 약 2천 600만 원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엔 887만 원으로 크게 줄었지만, 2021년엔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5월,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인정하고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한 만큼 2022년 국내 여행은 위축됐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관광 수요는 크게 줄지 않을 거란 전망이다.

이와 함께 KT, 정보 통신 기술 발달도 눈여겨봐야 한다. 북한에서도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됐다. 물론 인터넷 인프라를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한다. 하지만 과거 2G 휴대전화가 음성으로만 전달했다면 스마트폰은 동영상도 찍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다.

정보의 공유 속도가 빨라진 것이다. 그리고 모방하는 게 굉장히 빨라졌다. 여기에 맞춰 거래 편의성까지 높이고 있다. 카드 연구소의 연구자들은 지능카드들의 도입 범위를 넓히기 위한 연구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다.

전자결제 카드, QR 코드 같은 다양한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금융 정보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래서 북한 은행의 정보화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전자결제 카드는 종류에 따라 북한 돈은 물론 달러, 유로 등 외화까지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선불 충전에 익명성이 보장돼 숨어 있는 외화를 유통시킬 수 있다.

한국의 교통카드와 비슷하다. 카드에 충전하고 사용하는 만큼 지급이 된다. 유류카드(유통되지 않는 자금)이 많은 돈주라든가 북한의

엘리트층은 돈을 많이 벌게 된 이 유가 합법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금 출처를 확인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무기명 카드라 보니까 편하게 카드에 돈을 충전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은 좀 더 수월하게 유통화폐(유통되지 않는 화폐)를 흡수할 수 있다.

하지만 관광산업 활성화의 뒤에 선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문제가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기업소 안에서 여행할 수 있는 능력과 여행을 갈 수 없는 능력이 갈라져 있다.

기업소가 다 부담해서 데리고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 부담을 한다. 그 금액을 충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만 증명된 30명 중에 20명으로 추려서 데리고 간다.

여행을 떠나는 입장에서 남겨진 사람들이 안쓰럽기는 하지만 돈이 없으니 못 가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도 돈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관광도 갈 수 있다.

이전엔 생각도 못 한 변화를 겪고 있다. 코로나19로 상당 기간 해외 관광객 유치에 어렵지만, 관광산업을 통한 내수 활성화와 유류자금 흡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설

JMS 성폭력 혐의 압수수색

JMS 성폭력 혐의를 둘러싸고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3월 23일 기독교복음선교회 JMS의 정 모 총재의 여신도 성폭력 혐의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펼쳐졌다. 압수수색은 큰 충돌 없이 진행됐다.

버스와 승합차 여러 대가 기독교복음선교회 이른바 JMS의 수련원 안으로 끌리어 들어갔다. 신도들이 JMS 정 총재의 성폭력 혐의를 추가로 폭로하자 검찰과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검경은 압수수색에 인력 200여 명을 투입했다. 충남 금산군의 JMS 수련원과 주거지, 정 씨의 조력자로 지목받는 A씨의 경기도 성남시 내 교회 등 10여 곳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신도들이 저항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물리적 충돌 없이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은 저녁까지 이어졌다. 정 씨는 이미 20대 외국인 여신도 4명을 추

행,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출소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외국인 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1월에도 한국인 신도 3명의 추가 폭로가 나와 충남 경찰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명석 씨의 성범죄에 조력한 혐의를 받은 A씨는 검찰에 최근 입건됐다.

검·경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데도 관련자와 조력자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정 씨의 1심 구속기간이 오는 4월 27일 끝나기 때문에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에서 정 씨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이 너무 많고, 변호인들이 현장 검증, 증인 추가 채택을 재판부에 요청하고 있어 4월 내에 1심 선고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발 황사 유입

미세먼지 악화 지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지난 21일부터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 먼지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면서 미세먼지가 악화하고 있다.

오후부터는 수도권 등 내륙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고 있다. 이번 황사는 24일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다.

23일 오전, 서해안 섬 지역 하늘이 뿌옇게 변하더니, 오후부터는 수도권 지표면 부근으로 누런 먼지층이 가라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를 전, 중국 내몽골과 북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황사가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내몽골 고원이라든가 고비사막, 그리고 황토고원 쪽에서 황사 입자가 발원하는 모습들을 천리안 영상을 통해 잘 확인할 수 있다.

기상청은 강한 황사는 대부분 중국 내륙 쪽으로 향했지만, 일부가 북서풍을 따라 우리나라

서쪽 지역으로 통과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23일 밤에도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전북지역에 선 미세먼지가 '나쁨' 단계를 유지했다. 일부 지역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는 곳도 있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황사가 24일에도 전국 곳곳에 영향을 주겠지만, 23일보다는 열어저 밤부터는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중국 황사 발원지에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모래 폭풍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기류의 흐름만 맞다면 언제라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황사가 나타날 땐 노약자와 기저 질환자는 외출과 야외 활동을 삼가야 한다.

외출해야 한다면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정과 회사에서는 창문을 잠그는 등 미세먼지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특히 외출할 때 마스크를 꼭 챙겨야 할 때이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고속도로로 막고 시위하는 이스라엘 시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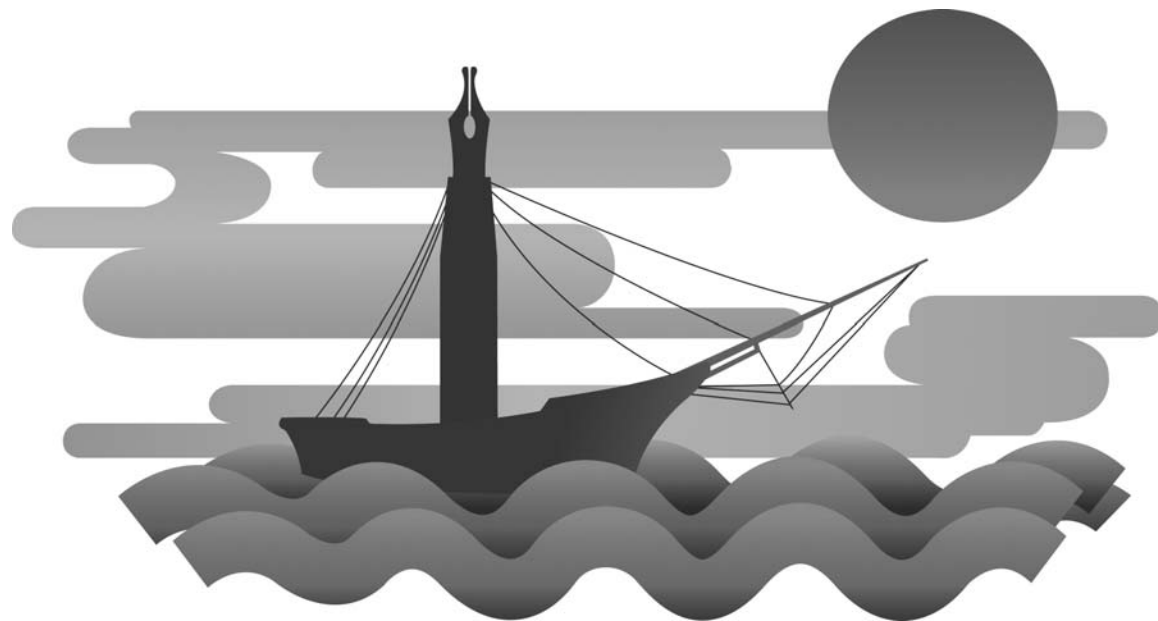
지난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사법 개혁 반대 시위대가 고속도로를 막고 시위하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항의 시위에도 이스라엘 의회는 사법 개혁의 몇 가지 법안 중 첫 번째 법안을 통과시켰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사법 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항후 아권과 반대 세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도 전했다.

프랑스 전역에서 또다시 대규모 시위



지난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연금 개혁 반대 시위대가 각종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헌법 조항을 이용해 하원을 건너낸 정부의 연금 개혁 강행 처리로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전역에서 또다시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